



스위스 최고의 3성 호텔.

4성 5성 부럽지 않은 세련된 3성 호텔

열정적인 주인의 세심한 손길

스위스 다운 환대

편안함과 친근함은 기본

5성급 풍경 속 3성급 숙박비

“스위스 톱 3 스타 호텔(Top 3 Star Hotels of Switzerland)”은 스위스 전역에 있는 3성 혹은 수퍼리어 3성급 호텔 중 25여 개를 엄선해 구성된 협회다. 열정적인 주인이 세심히 운영하고, 4성급 및 5성급 호텔 업계의 품질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스위스 다운 환대를 실질적인 체험으로 만드는 것이 이 협회에 속한 호텔의 목표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열정과 세심한 배려를 다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런 호텔 중, 몇 곳을 소개한다.

1. 알마 호텔(Alma Hotel)***, 취리히(Zurich)

알마 호텔은 19세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에서 여행자를 맞이하고 있는데, 취리히 호수에서 겨우 100m 거리에 있다. 취리히의 역동적인 제펠트(Seefeld) 구역에 위치한 빌라 호텔에는 세련되게 단장한 16개의 객실과 2개의 넓은 플랫폼이 있다. 글로벌 체인 호텔의 단조로움과 차별화되는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 오래된 파케 플로어, 따뜻한 색감, 엄선한 마감재,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가 설치된 아늑한 박스 스프링 베드가 좋은 예다. 벽난로가 있는 로비, 자그마한 장미 정원, 베란다, 아름다운 루프 테라스가 기분 좋은 시간을 선사해 준다. 여성만 출입이 가능한 위층에는 증기탕과 핀란드식 사우나, 바이오 사우나가 갖춰진 스파 시설이 있다.

2. 호텔 벨러리브(Hotel Bellerive)***s, 체르마트(Zermatt)

마테호른(Matterhorn) 뷰가 펼쳐지는 체르마트 마을 한복판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트렌디한 호텔이다. 3성급 호텔 기대치 이상을 선사해 준다. 스타일리쉬한 객실, 편안한 스위트룸에는 네스프레소 기계, 목욕 가운이 갖춰져 있고, 발코니가 딸린 객실도 많다. 최대 6인이 묵을 수 있는 럭셔리 플랫폼도 있다. 지역 생산물로 구성된 아침 식사도 훌륭하다. 스파 시설, 벽난로 라운지, 태블릿 기기도 갖췄고, 기차역까지 셔틀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티크 & 디자인 호텔’ 카테고리로도 인증받은 곳이다.

3. 호텔 레스토랑 앵겔(Hotel Restaurant Engel), 슈탄스(Stans)

유서 깊은 건물 안에 자리한 모든 객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단장되었다. 루체른 호수 지역에 있는 슈탄스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어 주변 지역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편리하다. 호텔과 레스토랑을 겸하는 앵겔에는 마을 광장의 아름다운 뷰가 펼쳐지는 널찍한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한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며, 겨울에는 햇살을 즐기며 쉬어가기 좋다. 신선한 재료와 로컬 생산품을 사용해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레스토랑은 스타일리쉬하게 단장된 공간과 아늑한 전통 스위스 식당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4. 호텔 니드발트너호프(Hotel Nidwaldnerhof)***s, 베켄리드(Beckenried)

루체른(Luzern) 호숫가에 위치해 있는 니드발트너호프는 가족이 운영하는 수퍼리어 3성급 호텔로, 호수와 직접 연결된다. 호수 뷰를 선사하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객실과 발코니 또는 테라스를 갖춘 스위트룸이 있다. 파노라마 레스토랑과 호숫가 라운지에 농가 습도 들어서 있다. 메뉴에는 제철 특선과 갓 잡은 생선으로 구성된다. 식재료는 근방 생산자들에게 공급받고 있다. 주인장이 엄선한 와인셀러도



훌륭하다. 근방에 보트 선착장과 케이블카가 있다. 호텔 차고에는 무료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다. '전형적인 스위스 호텔(Typically Swiss Hotel)' 카테고리로도 인증받은 곳이다.

5. 호텔 에델바이스(Hotel Edelweiss)***, 블라텐(Blatten)

3 대째 가족이 운영해 오고 있는 이 3 성 짜리 전통 호텔은 개성 넘치는 블라텐 마을에 있는데, 매력적이면서도 우아한 샬레 스타일이다. 아늑한 목재 단장으로 마감한 23 개의 객실은 모두 말끔하게 보수됐다. 맛있는 아침식사도 포함되어 있다. 우아한 미식 레스토랑과 마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펍도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발레(Valais) 주 향토식을 맛볼 수 있다. 뢰첸 계곡(Lötschental)의 광활한 뷰가 펼쳐지는 햇살 좋은 테라스가 아름답다. 활동적인 하루 후에는 사우나와 스파 시설을 이용하면 좋다. 4 인용 객실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여행에도 좋다. 무료 주차장과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마련되어 있다. '전형적인 스위스 호텔(Typically Swiss Hotel)' 카테고리로도 인증받은 곳이다.

6. 런던 호텔(Hotel de Londres)***, 브리그(Brig)

“친구들과 집에서 – 1884 년부터”라는 타이틀로 발레 지역 전통 환대를 선사하는 호텔이다. 영국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져 부티크 디자인 호텔다운 면모도 갖췄다. 여행자, 모험가 뿐만 아니라, 고향을 찾는 발레 사람들에게 임시 거주지가 되어주고 있다. 16 개 객실과 2 개의 스위트룸, 1 개의 세미나룸을 갖췄다. 그중 세미나룸은 브리그 출신의 화가인 오토 팬더(Otto Pfänder)의 이름을 따 오토 슈투바(Otto's Stuba)라 부른다. 공동 주방이 있는 아늑한 리빙룸과 바도 있다. 41 개의 4,000m 급 봉우리와 와인에 대한 애정으로 유명한 발레 지역은 즐거움을 담백 선사해 주는데, 이 호텔은 그 한복판에 자리해 있다. 로마시대 온천인 브리거바트(Brigerbad)와 이탈리아 마을 도모도솔라(Domodossola)에서 열리는 장터도 가깝다.

7. 호텔 개디(Hotel Gädi)***s, 그래헨(Grächen)

발레 지역의 매력적인 마을, 그래헨에서 가장 따뜻한 3 성 호텔이다. 2017년에는 “스위스에서 가장 친절하고 호화로운 호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햇살 좋은 자리에 위치한 덕분에 밝고 쾌활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웅장한 발레 주 봉우리가 펼쳐내는 뷰가 웅장하기 그지없다. 아늑하고 밝게 단장된 객실은 여행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무엇보다 매력 포인트는 침대에 누워 발레 주 산 위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터에서 공수한 제철 식재료로 보석 같은 요리를 만들어 내는 레스토랑도 훌륭하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